제례음악 정악에 신선함을 입히다

정악곡의 백미로 손꼽히는 '수제천' 연주모습. 악기 간 음량의 조절과 편성 악기 수의 변형을 통해 공연에 새로움을 더했다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 '정악 새로움을 더하다' 공연

궁중의 연례나 각종 제례 등의 의식 음악으로 쓰인 정악(正樂)이 무대 예술을 위한 감상 음악으로 새 옷을 입고 관객들을 맞이한다.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이 25일 오후 8시, 26일 오후 3시 예악당 무대에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꾸미는 '정악 새로움을 더하다' 공연을 올린다. 한국의 정악을 대표하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그동안 전통을 유지하며 올곧게 이어온 음악적 구성에 신선함이 더해진 의미 있는 무대다.

국립국악원은 "그동안 각종 제례, 연회 등의 의식 음악으로 쓰인 정악이 지닌 기능적 목적을 넘어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 예술 작품화해 선보이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제강점기 위기에도 불구하고 장악원, 이왕직아악부를 통한 조선왕실과 풍류음악의 맥을 이어온 오랜 정악의 역사 속에, 국악 인생 60여년 동안 국립국악원의 전통음악을 평생 계승해 온 피리정악과 대취타의 인간문화재 겸 정악단의 예술감독인 정재국 명인이 내놓는 정악의 또 다른 표준인 셈이다.

정악곡의 백미로 손꼽히는 '동동'과 '수제천'을 비롯해 '현악별곡'과 '자진한잎 별곡', '가곡별곡' 등의 레퍼토리를 이틀 간 선보인다.

새로움을 더한 공연의 주제에 맞게 음악적 구성도 달리했다. 본래 피리 위주의 선율이 주도하는 합주곡의 형태에 현악기와 타악기의 특색을 더했다. 악기 간 음량의 조절과 편성 악기 수의 변형을 통해 현대의 균형있는 관현악 편성의 특징을 더했다.

피리 선율에 타악기 더해 '동동' '수제천' 선보여

전승 위기에 처한 국악기의 재배치도 눈에 띈다. 달처럼 둥근 울림통 위에 4개 현이 달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악기 월금(月琴), 거문고·가야금과 함께 신라의 '삼현'으로 불리며 널리 쓰인 대표적인 향악기 '향비파(鄕琵琶)' 등 지금은 연주법 등이 전승되지 않는 국악기를 합주곡에 다시 배치했다.

음색의 풍부함은 더하고 해당 악기의 활용도는 높인 것이다. 또 대쟁과 생황, 단소, 양금 등 기존의 정악 합주곡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았던 악기들도 새롭게 추가해 다양한 국악기의 음색을 조화롭게 꾀했다.

정악의 성악 장르인 가곡에도 새로움을 더해, 주로 독창이나 남녀창 등으로 불리는 성악 편성을 최대 30명이 함께 부르는 중창과 합창 등으로 구성해 선보인다. 주로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반주 규모도 30명으로 늘렸다. 성악이 전하는 선율을 기악으로도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

정재국 예술감독이 음악 전체를 통솔하는 집박(執拍)으로 나선다.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등 연주의 진행을 총괄한 기존 집박의 역할을 벗어나 직접 박과 장구 연주로 장단의 호흡을 조절한다. 악보 없이 오로지 정악이 전하는 자연스러운 선율에 맞춰 정악단을 이끌 예정이다.

예매 국립국악원 홈페이지(www.gugak.go.kr), 인터파크티켓(ticket.interpark.com), 전화(02-580-3300), 1만~3만원.

/정해은 기자

부안예술회관 예산 지원받아 '어린왕자' 일정협의 후 공연

부안예술회관이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돼 6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에 선정돼 부안에서 열리는 공연은 '2016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해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이다.

부안예술회관이 공모를 통해 선정 받은 공연은 국립현대무용단의 '어린왕자'로 공연 일정은 공연단체와 협의 중이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우수한 창작작품 개발과 레퍼토리 정립을 통해 한국 현대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역순회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무용의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다.

공연 '어린왕자'는 생텍쥐페리의 동명 소설을 모티브로 가족 모두가 공유하고 상상할 수 있는 현대무용 작품이다.

특히 대중문화 및 예술 등에 걸쳐 빼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영화감독 김지운씨와 음악감독 정재일씨 등과의 협업을 통해 환상적인 무대 연출을 선보인다.

부안군 관계자는 "현대무용은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뛰어넘어 홀로그램,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한 무대 연출을 통해 부안군민들에게 오복의 즐거움을 드리는 공연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감성의 흔적-사계' 전시회

정읍시립미술관, 내달 2일부터

정읍시립미술관이 내달부터 상반기 기획전시 '감성의 흔적-사계(四季)展(이하 사계 展)'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는 정읍 출향작가들과 정읍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복합장르(한국화/문인화/서양화/조각/도예/공예/서예/설치 등)로 80여점 이상의 대작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

시립미술관은 "내달 2일 오후 2시 개막식을 갖고 5월 22일까지 51일간 시립미술관 1, 2, 3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이어갈 예정이다(매주 월요일 휴관)."고 밝혔다.

시립미술관은 "사계展은 작가들만의 창작의 세계를 감수성으로 담아낸 사계절의 변화와 우리 삶의 작은 이야기들을 은유적으로 해석해보는 현대미술전이다."며 "복합장르미술을 접해보는 기회이자 예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예술가들만의 창작의 세계와 대중이 교감하는 감동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관람객 자신만의 관념의 세계와 사유적 이야기로 작품을 해석해보고 복합장르미술의 흐름을 가늠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람료는 무료이고, 자세한 내용은 시립미술관(☏063.539-6420/6418~9 http://www.jma.jeongeup.go.kr)에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완주군 옛잠종장 주민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4월 본격 공사 7월 완공 계획

완주군 구)잠종장 복합문화공간이 새로운 주민문화 생산기지로 탈바꿈 된다.

완주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구) 잠종장 일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복합문화 공간조성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됐으며, 주민교육을 통해 예술의 창의적 생산과 구)잠종장의 산업 생산 가치를 문화 생산 가치로 연결하는 공간재생으로 추후 지역정체성을 기반한 주민생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군은 복합문화공간 1차 공간조성이 확정됨에 따라 4월부터는 본격 공사에 돌입하여 7월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간 구성으로는 디자인융합실과 공예기반 워크룸 (도자,유리,섬유,금속,목공), 레지던시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문화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완주군은 재)완주문화재단과 함께 지난 14일 주민과 문화기획자,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복합문화공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사업경과와 공간조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제 1차 복합문화공간과 연계한 견사 가공장과 차고, 농기구 2동을 2차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6억 5천을 확보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기능을 한층 더 보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재)완주문화재단에 운영을 위탁했다.

현재 재)완주문화재단은 총괄기획자를 채용 중에 있으며 4월중으로 복합문화공간 추진사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구)잠종장의 공간이 완주군민의 새로운 창의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이곳이 군민이 만들어 가는 문화 생산기지로 활성화되어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군산예술의전당 무료악기 교육

군산예술의전당이 '2016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행복한 우리동네 문예인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 됐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유도를 통한 문화예술 애호가 저변 확대와 지역 예술강사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 줄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이다. 군산예술의전당의 첫 번째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인 1악기 프로젝트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60명에게 실생활에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악기인 오카리나와 우크렐레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군산=문정곤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3월 17일〉

▷쥐띠
48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따르니 쓸데없는 지출은 줄여라.
60년생: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
72년생: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84년생: 잠깐 금전운이 돌아오나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난관이 발생.

▷소띠
49년생: 고집은 금물. 타인과의 관계도 늘어질 수 있다.
61년생: 윗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라.
73년생: 구설수와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다. 해결하려면 할수록 일이 틀어지니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공과 사를 잘 구별해야 하는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경쟁자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는 운.
62년생: 처음에는 원망하나 나중에도 고마워할 일이 생기니 일시적인 감정으로 행동하지 마라.
7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8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토끼띠
51년생: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수 있는 운
6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손윗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75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기 좋은 운.
8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용띠
52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찍 움직여라.
64년생: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고 시비수가 발생한다.
76년생: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한다.
88년생: 자신보다 어리다고 무시하는 언행은 삼가라.

▷뱀띠
53년생: 변동이나 변화를 가지면 흉한일이 생기는 운.
65년생: 익숙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77년생: 생각했던 것을 구체화 시켜서 조심스럽게 행동으로 옮겨보아라.
89년생: 무심코 했던 행동으로 구설수가 발생하고 원망을 살 수 있다.

▷말띠
54년생: 여성은 남성과의 트러블을 피해야 한다.
66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결과
78년생: 인덕이 있는 운이다.
90년생: 동기간에 화합하면 좋은 일이 있으나 적대감을 갖게 되면 경쟁자로 돌변한다.

▷양띠
55년생: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운.
67년생: 더 큰 것을 욕심내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맞지 않아 기분 상할 일이 발생하나 일시적인 것이니 마음에 두지 마라.
91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지출이 많아지는 운.

▷원숭이띠
56년생: 믿고 있던 것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되는 운.
68년생: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며 행동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80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92년생: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운이다.

▷닭띠
57년생: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생기니 나서지 말고 언쟁을 삼가라.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득이 있을 운이니 베풀어라.
81년생: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주고받기 좋은 운이니 적극 진행하라.
93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개띠
46년생: 식록이 따르고 인덕이 있는 운.
58년생: 하고자 하는 모든일을 약간 모자르게 해라. 완벽하게 해내는것이 오히려 독이 될것이다.
70년생: 윗사람과의 화합에 신경써라.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82년생: 건강에 좋지 않은 운이니 섭생에 주의가 필요하며 무리는 금물.

▷돼지띠
47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고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나니 주의하라.
59년생: 금전적인 손실이 따르는 운이다. 투자나 투기는 삼가라.
71년생: 순간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마라. 어려움은 곧 풀어질 것이다.
83년생: 두 번, 세 번 봐도 놓치는 것이 생기는 운.